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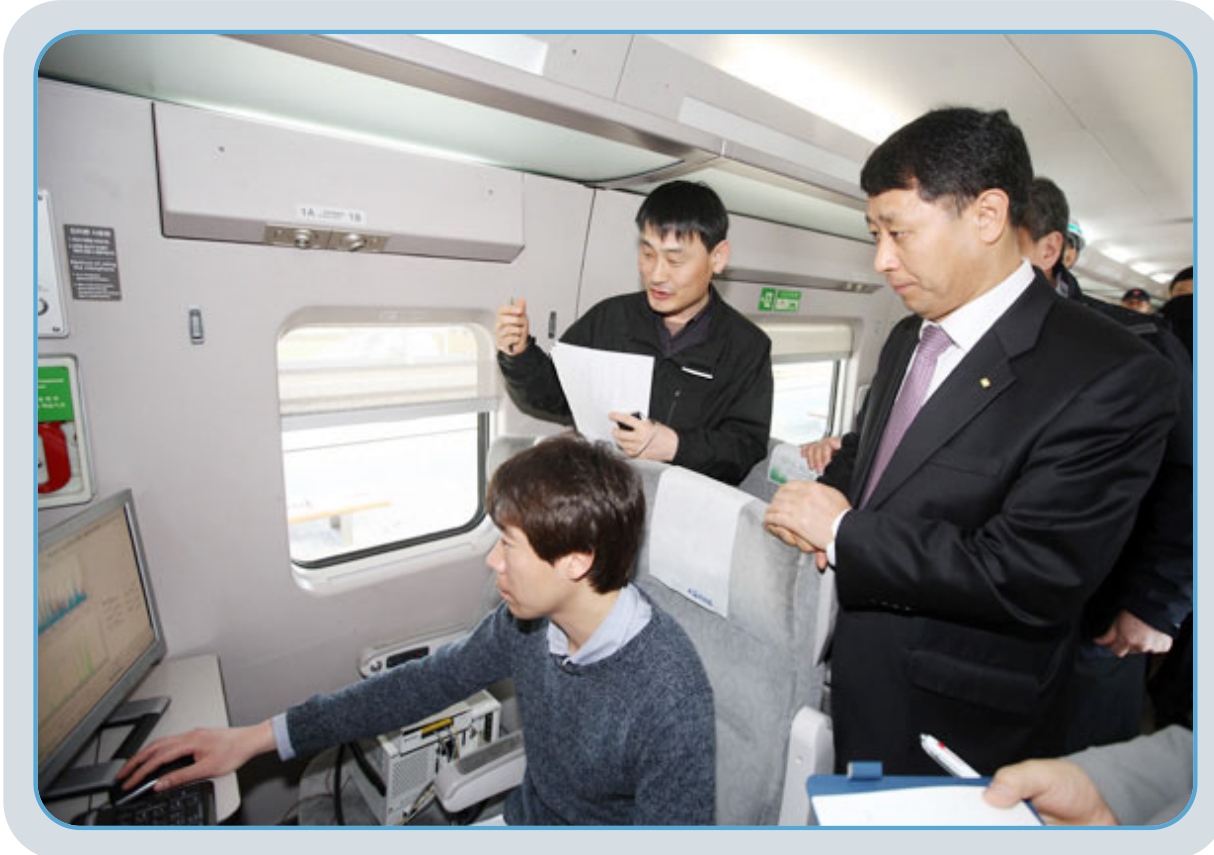
CEO 동선

호남고속철도 등 건설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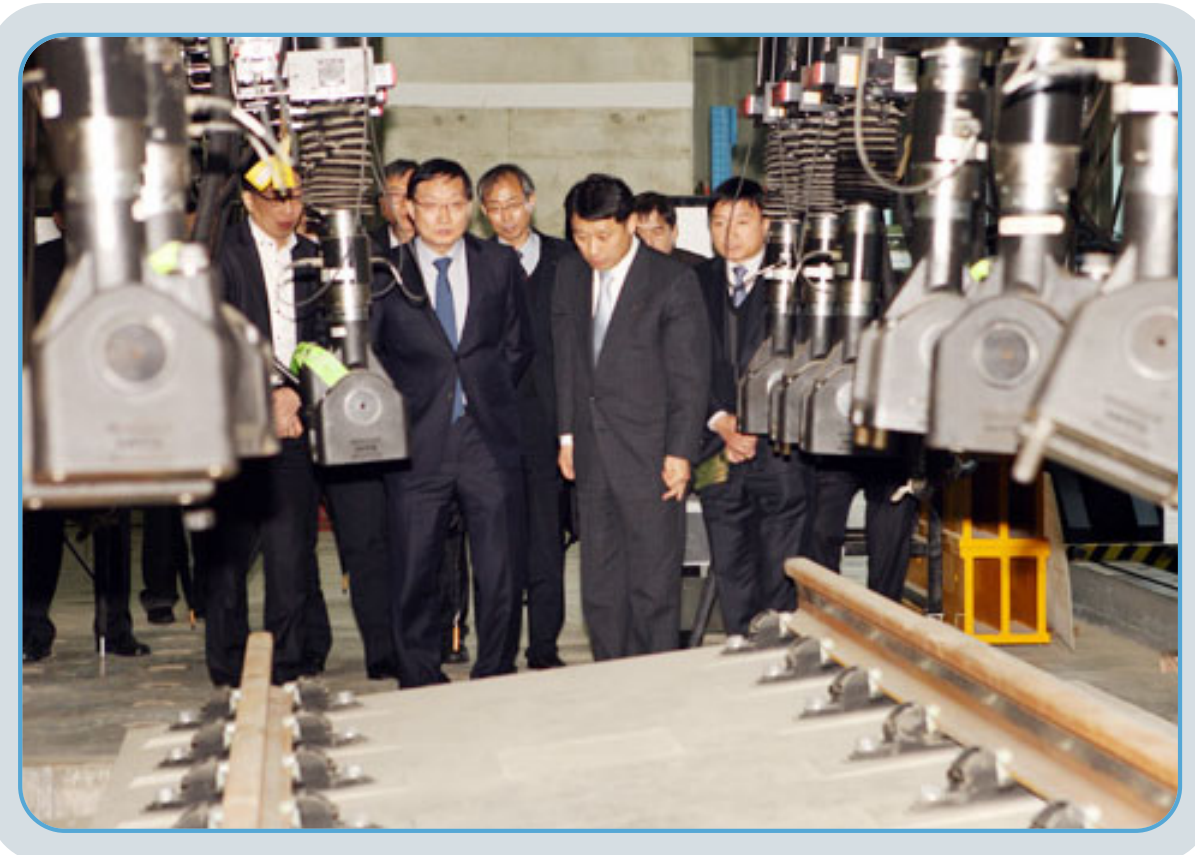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달성터널, 노령터널 등 호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2014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중합시험운행 현장 시승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전라선 고속화사업 시공구간에 대한 중합시험운행 열차인 KTX-산천을 시승하고, "여수세계박람회를 국내외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공단-철기연 교류회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산업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회를 갖고,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컨설팅 확대, 연구개발과 기술정보 공유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대로템 기술연구소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차세대 고속열차 및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될 차량설계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연구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천안함 2주기 맞아 현충원 참배 헌화

- 공단 부장이상 간부들 천안함 46용사 애도 -

공단은 지난 3월 23일 천안함 2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번 참배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 목숨을 내놓은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현충원 참배는 오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부장급 주요 간부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천안함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묘역과 천안함 전사자 46명이 안장된 308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조문했다.

한편 공단 임직원은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 기간 내에 사내 현수막 설치, 추모글 달기, 국립현충원 가족과 참배하기 등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단, '희망의 나무심기' 나서

- 29일 충남 공주에서 소나무 2천여 그루 식재 -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67회 식목일을 맞아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소재 국유지에서 소나무 2천여 그루를 심는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공단은 2004년 창립 이래 지난 8년간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왔는데, 금년 식목행사는 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 있는 세 기관이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광재 이사장은 "나무심기는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 활동으로, 이번 나무심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푸르른 국토를 물려주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식목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 수종으로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데마는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지니는 특성이 있어 '희망의 나무 심기' 활동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경영지원안전실 박종호 기자)

장항선 개량 2단계 및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공단, 노반 실시설계 착수

공단은 지난 3월 14일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및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의 노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은 신성~주포, 남포~간치 간 32.4k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9499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이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은 2016년까지 380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단선 비전철 구간인 동두천~연천 간 20.8km를 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계용역은 그간 하도급 형태로 시행되던 지반조사 용역을 공단 최초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서 공단에서 중점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항선 전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43분 소요되는 천안~익산까지의 운행시간이 94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전철이 연천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2개의 사업에서 각각 18개소와 15개소의 건널목이 모두 입체화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단절 해소 및 통행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 용문차량사업소 4월초 개통

- 수도권 전동열차의 정비 및 주차 기능 갖춰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용산~용문간을 운행하는 중앙선 전동차(25편성)의 정비 및 주차기능을 수행할 중앙선 용문차량사업소를 4월 3일부터 운영개시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중앙선 전동열차는 성북에 위치한 이문차량사업소에서 일반열차와 함께 경쟁비·청소 등을 해왔으나 이번 개통으로 한층 더 내실 있고 기계화된 차량정비가 가능해져 고장율을 낮추고, 차량관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총사업비 1천6백여억원을 들여 '07년에 착공되었으며 공정을 99%로, 검수과와 입찰고선 등 주요시설물 건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에 있다.

이원기 강원본부 건축설비부장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기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시설로 건설하였다"고 밝히고, "검수장비를 최첨단 기계화하여 운영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철도운영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